



정교회주보

제2424호

2023.6.11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북서부 지방에 있는 아르타는 어제(10일) 안식 1주기를 맞은 고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고향이다. 이곳에는 13세기에 지어진 성모님 성당(사진)이 잘 알려져 있다. 성당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3층으로, 8개의 기둥이 중앙 돔을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태오 제1주일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성 바르톨로메오스, 바르나바 사도
중국의 222인 순교자들
(제8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82
- 모든 성인들 찬양송 269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 시기송 269
- 사도경 : 히브리 11,33~12,2 ... 269
- 복음경 : 마태오 10,32~33; 37~38;
19,27~30 108
- 영성체성혈송 27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시여, 중보해 주소서

신자들이여, 와서 기뻐 뛰며, 모든 성인의 장엄한 축일을 경건하게 경축합시다. 그들의 영광을 기념하며 외칩시다.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순교자들과 주교들과의 인들과 복된 이들과 거룩한 여인들이여, 영원하소서. 세상에는 평화, 우리 영혼에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께 기도해 주소서.

순결하신 동정녀시여, 나의 창조주, 나의 해방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태에서 나오시어, 내 모든 존재를 덧입으시고, 아담을 옛 저주에서 해방하셨나니, 동정 성모님이시여, 우리는 당신께 천사의 인사를 드리길 그치지 않겠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어,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여왕이시여, 기뻐하소서.

'오순절 전례서'에서

증언과 사랑, 희생과 보상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오늘은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축일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증언자들, 고행자들, 교부들 등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빛낸 성인들을 기념합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천사와 대천사들 사이에서 대접받으며 영광스러운 화관을 받으신 성인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려고 용감하게 투쟁하며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순교 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하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이심을 증언하고, 둘째로는 주위의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며, 세 번째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먼저 당신의 이름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마태오 10,32)

만약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열정적인 증언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

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알리게 되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인들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삶으로써 보여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세상이었던 그 시절,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성인들께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성인들께서는 그들에 의해 직위와 부, 명예 등을 다 빼앗기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미련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옥에 갇히고 맹수의 먹이로 내던져졌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하느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분들과 같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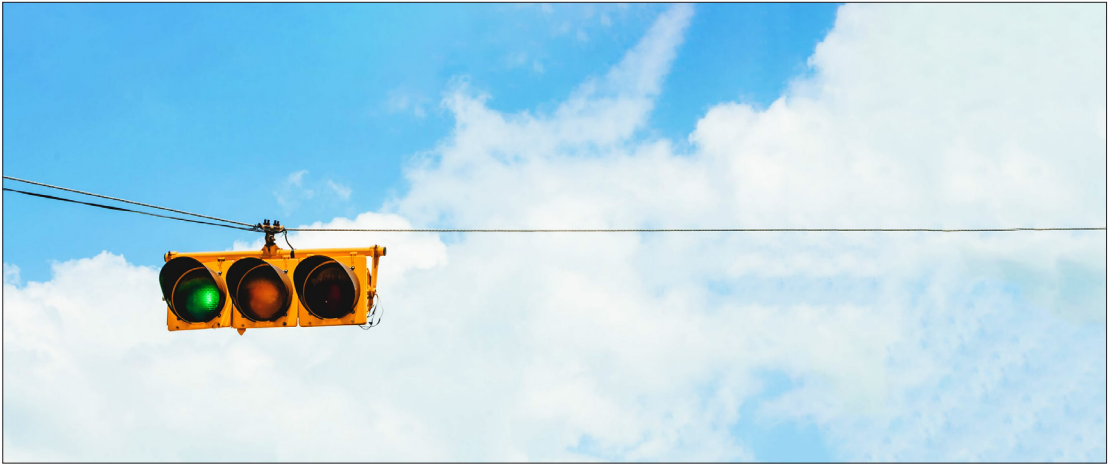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마태오 10,37)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배워야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4면으로 계속

사람의 시선과 하느님의 시선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인생을 살다보면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달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른테면 말뿐만 아니라 거북이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가요?(창세기 7,8-9) 때때로 인생이라는 여행은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노아 때 동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이 목적지로 삼은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볼까요? 야콥은 요셉을 보며 그가 선하고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는 쓸모없는 몽상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산 상인들은 그를 노예로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는 아주 좋은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음흉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보며 죄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요셉을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까?

하느님은 요셉을 보시고는 그가 장래의 이집트 총리감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따라 위축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따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서 무엇을 준비해두고 계신지 여러분은 모르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조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 자녀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정원사가 장래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이 한갓 양을 치는 어린 아이였을 때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사무엘상 16,11-13) 에스델은 고작 부모 없는 고아 소녀였지만 장차 왕비가 되었습니다.(에스델 2,7, 17)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언제나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하시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오래도록 정교회를 올바르게 이끄시며 주님의 양 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운영 재개

수련과 교육을 위해 그리스 크레타의 흐리소피기 수도원을 방문했던 아가티 수녀와 마리아 예비 수련자가 귀국함에 따라 구세주 변모 수도원이 정상 운영됩니다.



■ 서울 성당 결혼 성사

지난 3일(토), 세라핌 박경-유스티나 김민경 두 분의 결혼 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지난 오순절 주일(4일), 많은 이웃이 성당을 방문한 가운데 세계 음식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축제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신데즈모스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 시작

내일(12일)부터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수, 금요일을 제외하고 생선이 허용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사도들의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면에서 계속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능력과 힘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삶은 다음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목말랐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또 헐벗었을 때에… 병 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

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35-40)

하느님께서서는 희생적인 행위를 양으로 따지지 않으시고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가까운 이웃에게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는 만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그만큼 클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고린토 전 2,9)